

< 경기지역 새 방송 공모를 위한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박탈당한 경기도민의 방송 청취권 경기도와 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 일시 : 2020년 10월 22일(수) 11:00

■ 장소 : 경기도청 앞

- 순서 -

발언1 : 송현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2 : 남윤상 청취자

발언3 : 조성주 청취자

발언4 : 주형준 청취자

발언5 :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일 언론노조 경기방송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박탈당한 경기도민의 방송 청취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방송사업 착수를 위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지난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3년 간 경기도민들에게 뉴스와 음악, 교통, 재난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경기지역 소식을 중앙 소식보다 메인으로 다루는 뉴스와 경기도 시군을 주요 섹터로 하는 교통, 재난 정보 등은 경기방송, FM 99.9MHz만의 특징이자 장점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지역만의 특화된 정보는 지난 3월 30일 공적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사업주의 방송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청취주권은 7개월째 박탈당한 상태이고, 방송 종사자 100여명도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1,350만 도민을 위한 유일한 지역 라디오방송이 사라졌음에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너무도 한가해 보인다. 지난 9월 경기도 출자기관의 방송사업 착수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발의되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그제서야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10월 회기 역시 지나가버렸다. 그러는 사이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방송의 폐업을 단지 사기업 하나가 문을 닫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인가? 폐업의 직접적 책임이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의 방송 청취권 침해가 장기화되는 것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사기업에 의해 내팽겨진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는 지역의 정부와 의회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서명운동과 집회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 있었고 지역 정치권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를 보다 못한 경기방송 애청자들이 직접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역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경기도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정치적 논란거리도, 지역 간 이해관계의 다툼도 아닌, 오직 경기도민의 방송청취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심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이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답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청취주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지고 황금주파수 99.9MHz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경기도의 뉴스와 의제를 공론화하고 지역의 교통,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경기도민의 방송을 하루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월 3일 개의회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기지역 공영방송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방송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책임한 공모 지연을 함께 규탄해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도리어 도민의 청취주권을 내팽개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방송 해고 노동자들은 청취자들과 함께 경기도의 결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 10. 22.

전국언론노동조합